

# 다목 일대의 포유류

김형후 · 김대산  
한국수달연구센터

## 요약

다목 일대에 대한 포유류조사는 2018년 5~7월에 실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10종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1종(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은 1종(담비)이었다.

### 1. 서론

다목(도엽번호: 387151) 일대에 대한 기존의 포유류조사는 박허(2003), 남윤(2008)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이 조사는 제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포유류의 현황 및 서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2. 조사지역 및 방법

조사는 다목(도엽번호: 387151)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그림 1), 자세한 조사일정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9개의 격자로 나누었으며 총조사일수에 따라 임의 격자를 선택하여 1회씩 실시하였다(그림 1). 조사방법은 “제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을 따랐다(국립생태원 2016).

표 1. 조사일정

격자 \ 조사	1회 조사
E1	-
E2	-
E3	-
E4	2018. 7. 31
E5	2018. 7. 18
E6	2018. 5. 27
E7	-
E8	-
E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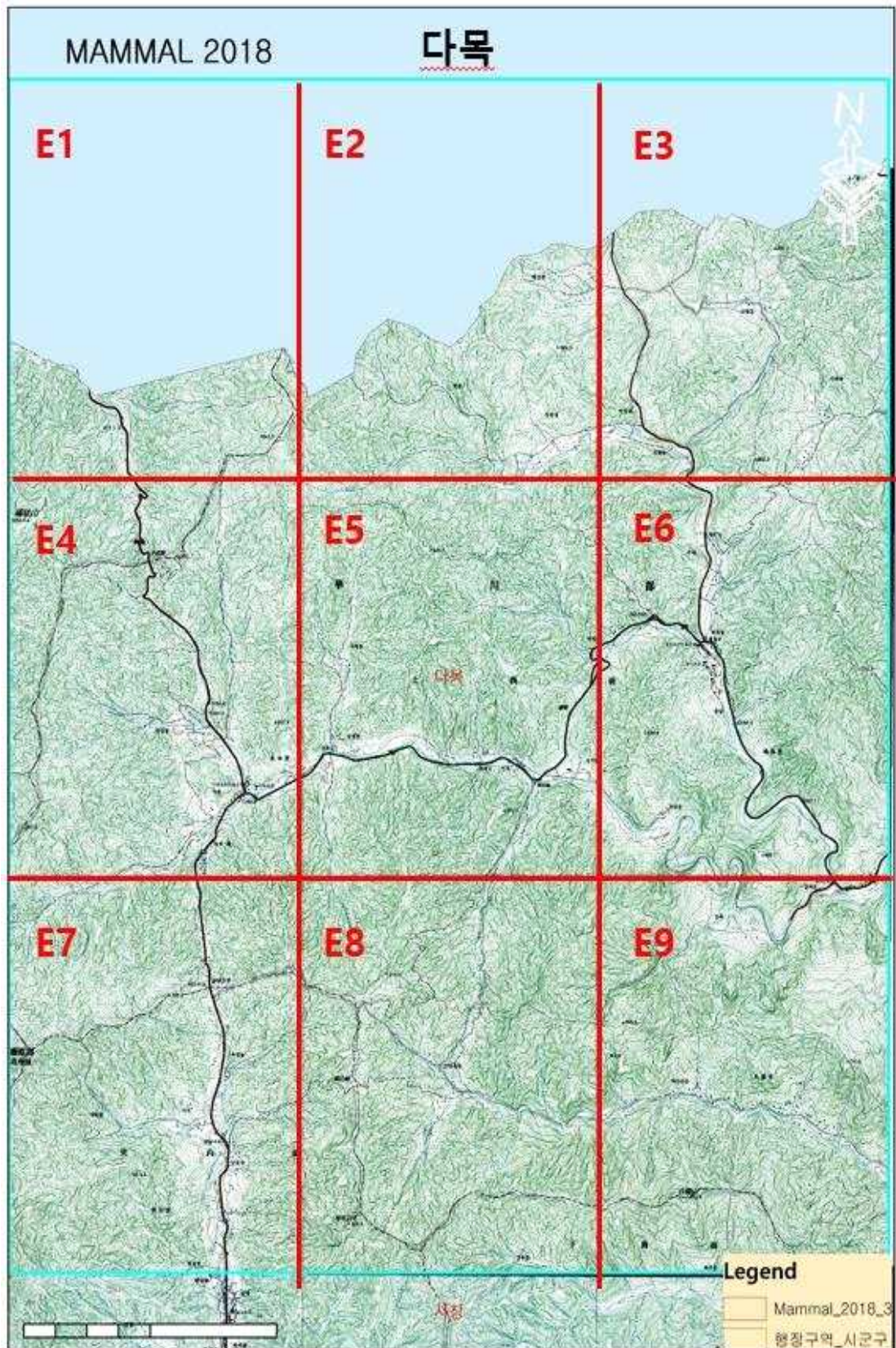


그림 1. 조사지역 현황

### 3. 결 과

#### 3-1. 전체 포유류 현황

다목 일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10 종이었다(표 2). 이를 격자별로 보면, E4가 6종, E5가 4종, E6이 3종이었다.

표 2. 다목 일대의 포유류 현황

(○: 출현, -:미출현)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4	E5	E6	E7	E8	E9
두더지					○				
관박쥐				○					
너구리					○				
담비				○					
오소리				○		○			
수달						○			
멧돼지				○					
노루				○					
고라니				○	○	○			
다람쥐					○				
합계(총10종)	-	-	-	6종	4종	3종	-	-	-

#### 3-2.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다목 일대에서 확인된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는 산림에서 8종, 경작지에서 1종, 수계에서 3종, 시가화에서 0종, 도로에서 1종으로 확인되었다(표 3).

표 3. 다목 일대의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 출현, -:미출현)

종명	서식지 유형	산림	경작지(논, 밭, 과수원)	수계(하천, 저수지)	시가화	도로(임도 및 지방도, 국도)
두더지		○				
관박쥐		○				
너구리				○		
담비		○				
오소리		○				○
수달				○		
멧돼지		○				
노루		○				
고라니		○	○	○		
다람쥐		○				
합계(총10종)		8종	1종	3종	-	1종

표 4. 다목 일대 서식지 유형별에 따른 출현종 서식 흔적수 현황

구분 유형	종명	계 (흔적)	배설물	족적	털	글	휴식처 (보금자리)	직접 관찰	포획	기타
산림	두더지	1				1				
	관박쥐	1						1		
	담비	1						1		
	오소리	1						1		
	멧돼지	3						1		2
	노루	2						2		
	고라니	7	1	5				1		
	다람쥐	1						1		
경작지 (논, 밭, 과수원)	고라니			1						
수계(하천, 저수지)	너구리	1		1						
	수달	3	3							
	고라니	1		1						
시가화										
도로 (임도, 지방도 등)	오소리	1								1

### 3-3.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다목 도엽에서 조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1 종(수달)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은 1 종(담비)이었다(표 5, 그림 2).

표 5. 다목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 출현, - :미출현)

구분 격자	종명	수달1	수달2	수달3	담비
E1					
E2					
E3					
E4					○
E5					
E6		○	○	○	
E7					
E8					
E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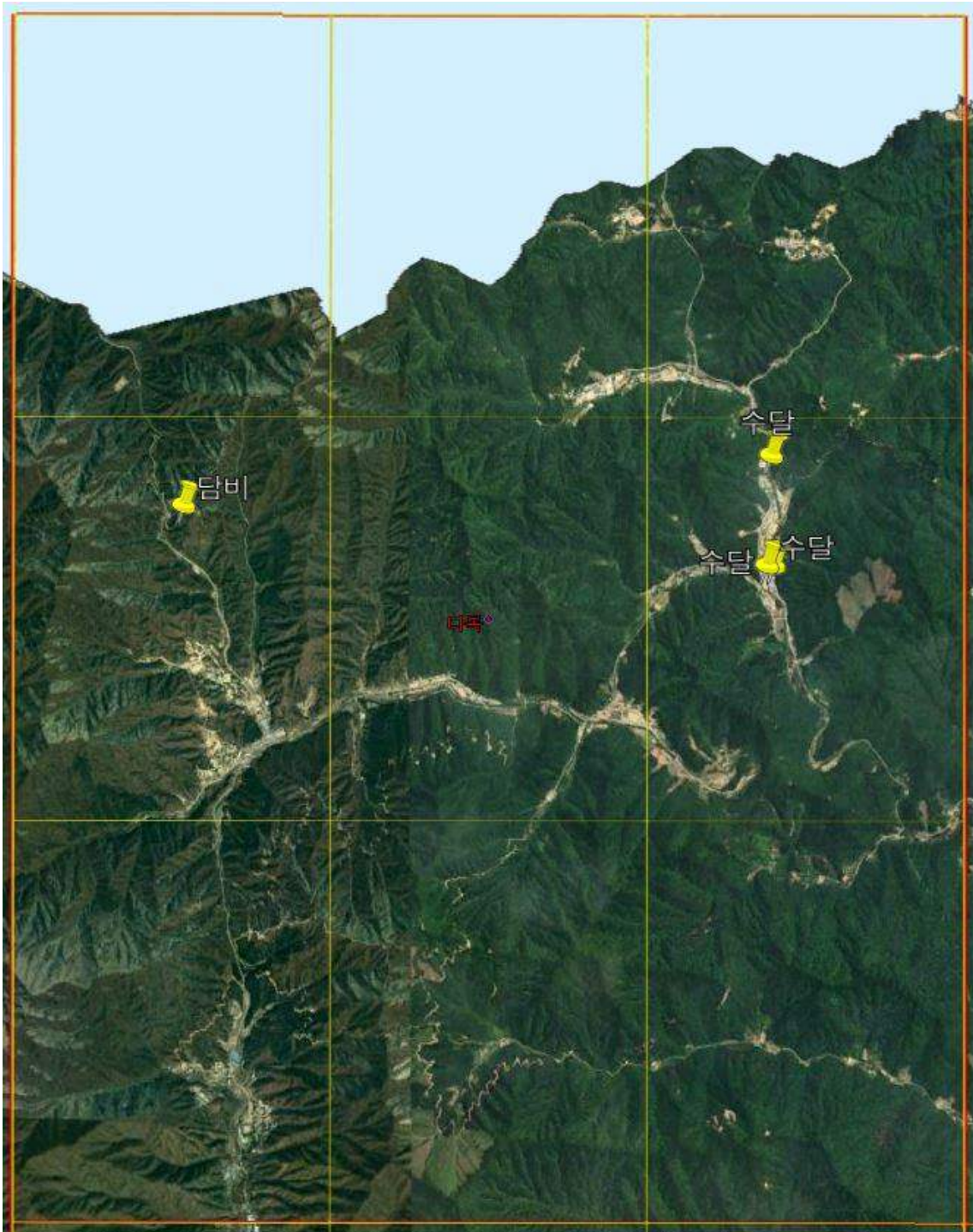


그림 2. 다목 일대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 4. 고찰

다목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는 총 10 종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수달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담비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는 산림에서 8 종, 경작지에서 1 종, 수계에서 3 종, 시가화에서 0 종, 도로에서 1 종으로 확인되었다. 수달은 주로 파포천 지류에서 배설물과 족적 등의 서식흔적을 발견하여 서식을 확인하였다. 산림 내 무인카메라 조사에서는 너구리, 오소리, 멧돼지, 다람쥐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담비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종의 경우는 임도, 저지대 및 경작지 등 전반적인 지역에서 서식흔적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지형으로 일부 낮은 저지대와 민가지역을 제외하면 군사작전지역인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인한 사람의 출입의 제한되어 조사지로 접근이 가능한 산림지역 주변에서만 포유류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사작전지역의 특성상 대체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지대 주변으로 다양한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어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흔적이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 5. 종합 및 제언

이번 조사를 실시한 다목 일대는 대부분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군사작전지역이 조사도엽의 상부지역에 위치한다. 대성산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매우 높고 험준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사지역에 속한 수계 중에서도 민가가 포함된 상서면 주변의 하천에서 수달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림지역 중에서도 사람의 의한 간섭이 미치지 않은 환경의 경우 육상포유류 뿐만 아니라 익수목에 속한 박쥐류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잘 보존된 산림환경은 다양한 포유류의 서식지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다목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림지역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서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산림이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한 포유류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도 본 조사도엽과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포유류의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다목 지역 역시 이러한 환경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포유류의 서식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판단된다.

일부지역에서 산림에 인접하여 전원주택 등이 위치하기도 하지만 저지대 및 하천 주변으로 민가와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어 인간과의 접촉이나 위협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지역 내 56 번 국도와 461 번 지방도 등 산간도로에서의 로드킬 위협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국립생태원. 2016.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 국립생태원.
- 남, 윤. 2008.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다목 일대의 포유류). 환경부.
- 박, 허. 2003.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춘천·화천 지역의 포유류). 환경부.
- 최태영, 최현명. 2007. 야생동물 흔적도감. 들베개.



## 사진대지



사진 1. 조사지역 전경(수계)



사진 2. 조사지 전경(산림)



사진 3. 관박쥐 관찰(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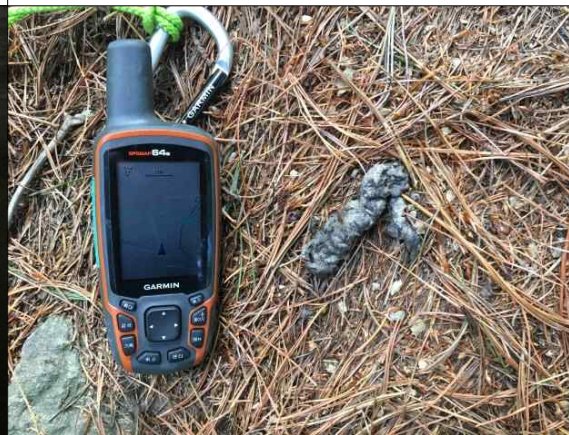


사진 4. 삽 배설물(산림)



사진 5. 고라니 족적(산림)



사진 6. 고라니 족적(수계)





사진 7. 수달 배설물(격자 E6)



사진 8. 오소리 촬영



사진 9. 멧돼지 촬영



사진 10. 담비 촬영



사진 11. 고라니 촬영



사진 12. 노루 촬영